

# IT수지흑자 최고기록

5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32.8% 증가한 128.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반도체(43.9억 달러, 82.9%)와 디스플레이패널(29.1억 달러, 37.6%)은 對중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IT수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휴대폰(17.5억 달러, △29.8%)은 수출 단가 하락과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신흥 시장에서의 보급형 터치폰 판매 확대로 '10.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1%로 확대되었다.

스마트폰 수출은 삼성, LG, 팬택 등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출시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한 3.0억 달러(잠정)를 기록하였다. 휴대폰 시장점유율(%), 삼성+LG+팬택)은 ('09.1Q) 28.8 → (2Q) 30.9 → (3Q) 32.5 → (4Q) 31.4 → ('10.1Q) 32.1이다.

또한, IT 무역 수지(68.8억 달러 흑자)는 '10.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산업 무역 수지 흑자(43.7억 달러)에 기여하였다.

##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10년		2009년		
	5월	1~5월	5월	1~5월	
수출	전체 산업	394.9 (41.9)	1,807.2 (36.3)	278.2 (△29.4)	1,325.7 (△25.0)
	IT 산업	128.1 (32.8)	599.1 (41.1)	96.5 (△17.2)	424.7 (△25.3)
수입	전체 산업	351.2 (50.0)	1,686.7 (40.9)	234.1 (△39.5)	1,197.0 (△34.6)
	IT 산업	59.3 (20.8)	288.4 (26.9)	49.1 (△22.1)	227.2 (△29.3)
무역 수지	전체 산업	43.7	120.5	44.2	128.7
	IT 산업	68.8	310.8	47.4	197.5

국가별로는 미국(14.9억 달러, 2.8%), EU(16.0억 달러, 17.3%), 일본(6.4억 달러, 18.6%) 등의 선진 시장과 중국(홍콩포함, 58.5억 달러, 56.0%), 중남미(8.0억 달러, 37.1%), ASEAN(11.1억 달러, 34.5%)등 개도국 모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35.0억 달러, 14.6%), 컴퓨터 및 주변기기(7.2억 달러, 38.0%) 등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0.8% 증가한 59.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 '10년 4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43.9	(82.9)	29.1	(37.6)	17.5	(△29.8)	128.1	(32.8)
중국(홍콩포함)	24.4	(133.2)	17.6	(49.0)	4.2	(△36.8)	58.5	(56.0)
미국	3.3	(91.2)	0.7	(140.2)	5.7	(△36.0)	14.9	(2.8)
일본	2.8	(5.7)	0.8	(37.2)	0.4	(△13.3)	6.4	(18.6)
EU	3.1	(108.6)	5.1	(15.5)	3.2	(△25.4)	16.0	(17.3)

향후 IT수출은 스마트폰, Tablet PC 등 IT 제품 출시 확대,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기업용 PC 수요 등으로 당분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패널 등 전자부품은 전방 세트 제품의 꾸준한 수요 확대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휴대폰은 중국 등 신흥 시장 공략 강화와 안드로이드폰, 바다폰 등 스마트폰의 본격 출시가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남유럽 재정 위기,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는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반도체 : 43.9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82.9% 증가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호조로 9개월 연속 수출 증가하며 최대치를 경신('10.3월 40.4억 달러, '10.4월 41.8억 달러)하였다. D램(17.6억 달러, 179.1%)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컴퓨팅 기기 반도체 탑재 비율 확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 확대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출하 확대에 따른 낸드플래시 수요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40.2%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4.4억 달러, 133.2%)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미국(3.3억 달러, 91.2%), 일본(2.8억 달러, 5.7%), EU(3.1억 달러, 108.6%) 등 선진 시장 수출도 증가세이다.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5	6	7	8	9	10	11	12	'10.1	2	3	4	5
반도체	24.0	25.1	27.0	28.8	32.1	34.3	35.0	34.4	33.0	33.5	40.4	41.8	43.9
	(Δ22.1)	(Δ23.0)	(Δ15.6)	(Δ7.2)	(9.2)	(36.4)	(80.1)	(125.5)	(120.6)	(117.9)	(123.0)	(97.7)	(82.9)
메모리	11.5	12.4	13.3	14.7	16.0	17.8	19.4	20.0	19.6	19.3	22.8	24.6	26.0
	(Δ32.8)	(Δ28.9)	(Δ23.3)	(Δ12.7)	(10.5)	(56.0)	(114.1)	(174.8)	(171.7)	(144.6)	(163.9)	(150.1)	(127.4)
D램	6.3	6.9	8.1	8.7	9.3	10.5	12.4	13.8	13.0	15.1	16.0	17.6	17.6
	(Δ34.0)	(Δ33.5)	(Δ25.0)	(Δ20.6)	(9.6)	(69.1)	(141.1)	(186.4)	(215.1)	(195.8)	(204.0)	(201.3)	(179.1)
낸드	1.7	1.6	1.6	2.0	2.1	2.4	2.0	1.8	2.1	2.1	2.4	2.5	2.4
	(Δ30.6)	(Δ31.9)	(Δ31.5)	(Δ2.4)	(24.5)	(86.1)	(78.0)	(132.4)	(110.2)	(82.9)	(81.9)	(78.0)	(40.2)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패널(부분품 포함) : 29.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7.6% 증가

패널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한 유일한 IT품목으로서, '10.3월 28.4억 달러, '10.4월 28.4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패널은 스포츠 이벤트 효과, 중국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요 증가와 수직 계열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 호조세를 유지했다. LCD 가격(TV 용 Full HD, 42인치, \$)은 ('09.11)340 → (12)340 → ('10.1)340 → (2)340 → (3)340 → (4)335 → (5) 335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49.0%), 멕시코(1.7%), 브라질(572.4%)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5	6	7	8	9	10	11	12	'10.1	2	3	4	5
금액	21.1	22.4	25.0	25.5	26.3	26.6	24.9	26.3	24.7	23.3	28.4	28.4	29.1
(증감률)	(Δ7.1)	(4.0)	(5.1)	(7.8)	(4.1)	(10.3)	(34.9)	(113.7)	(99.6)	(55.8)	(46.2)	(40.3)	(37.6)

휴대폰(부분품 포함) : 17.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9.8% 감소

휴대폰 수출은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휴대폰 수출 단가 하락으로 감소세이다.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전년 동기대비 휴대폰 평균 판매 가격 및 휴대폰 수출 가격이 하락했다.

휴대폰 수출 물가 지수 증감률(% , 한은)은 ('09.1) -25.5 → (2) -23.9 → (3) -20.5 → (4) -20.3이다.

점차 휴대폰의 원가 경쟁력이 시장점유율, 출하량 등 업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업체의 해외 생산 거점 확충 및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수출은 감소세이다.

반면, 스마트폰은 국내 업체의 자체 모바일 플랫폼 개발, 삼성, LG, 팬택 등 국내 업체의 전략적인 스마트폰 출시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한 3.0억 달러(잠정)로 수출 호조세이다.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라인업의 대폭 강화가 예상되는 3분기 부터는 스마트폰이 휴대폰 수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 삼성+LG)은 ('09.1Q) 4.5 → (2Q) 3.8 → (3Q) 2.9 → (4Q) 5.2 → ('10.1Q) 5.4이다.

지역별로 미국(5.7억 달러, Δ36.0%), EU(3.2억 달러, Δ25.4%), 일본(0.4억 달러, Δ13.3%) 등 선진 시장 수출이 감소했다. 중국(홍콩 포함, 4.2억 달러, Δ36.8%), 중남미(1.3억 달러, Δ4.3%), 중동(0.4억 달러, Δ27.2%) 등 신흥시장 수출도 동반 부진했다.

'10.1분기 우리나라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은 32.1%로 확대하였다. 신흥 시장에서의 보급형 폴더치폰 판매 호조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출하량 및 세계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다. 휴대폰 시장점유율(% , 삼성+LG+팬택)은 ('09.1Q) 28.8 → (2Q) 30.9 → (3Q) 32.5 → (4Q) 31.4 → ('10.1Q) 32.1이다.

2010년 1분기 글로벌 휴대폰시장 동향을 살펴본다. '10. 1분기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한 2.9억대이다.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5	6	7	8	9	10	11	12	'10.1	2	3	4	5
금액	24.9	25.1	26.2	22.8	25.1	25.8	24.6	18.4	21.2	18.7	20.4	17.5	17.5
(증감률)	(Δ11.1)	(Δ7.4)	(Δ11.4)	(Δ18.0)	(Δ22.6)	(Δ31.3)	(2.7)	(12.8)	(Δ3.4)	(Δ21.0)	(Δ14.9)	(Δ28.2)	(Δ29.8)

'10. 1분기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 및 폴더치폰이 휴대폰 수요를 견인하였고, 스마트폰 업체의 약진과 모토롤라, 소니에릭슨 등 기존 단말 업체의 실적 부진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5,540만대를 기록하여, 스마트폰 비중은 19.0%로 전

년 동기대비 4.3%p 증가했다.

RIM('09: 7위 → '10.1분기: 4위), Apple('09: 8위 → '10.1분기: 6위) 등 스마트폰 업체의 약진과 모토로라('09: 5위 → '10.1분기: 7위), 소니에릭슨('09: 4위 → '10.1분기: 5위)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삼성+LG+팬택)은 32.1% 잠정 집계되었다. 스마트폰 중심의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는 보급형 폴더치폰 판매 확대와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로 출하량(32.6% 증가)과 세계시장점유율(32.1%)이 확대된 것이다.

【 휴대폰 출하량 및 세계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백만대, %)

구분	'09.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1분기
전세계 출하량	244.5	272.8	290.2	336.5	291.4
(증감률)	-13.7%	-8.2%	-4.5%	14.5%	19.2%
스마트폰 출하량	35.9	41.5	43.4	53.9	55.4
스마트폰 비중(%)	14.7%	15.2%	15.0%	16.0%	19.0%
국내업체출하량	70.5	84.4	94.4	105.5	93.5
(증감률)	-0.3%	15.0%	22.8%	30.6%	32.6%
(세계시장점유율)	28.8%	30.9%	32.5%	31.4%	32.1%
Nokia 출하 증감률	-19.3%	-15.4%	-7.9%	12.2%	15.7%
소니에릭슨 출하 증감률	-35.0%	-43.4%	-45.1%	-39.7%	-27.6%
모토로라 출하 증감률	-46.4%	-47.3%	-46.5%	-37.5%	-42.2%

※ 자료: SAI(2010), 세계시장점유율은 삼성+LG+팬택 기준

'10. 2분기 글로벌 휴대폰 시장은 계절적 성수기 도래,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로 20~25%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칼라 TV(부분품 포함) : 6.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

칼라TV는 중국 TV 시장의 본격 성장기 진입, 국내 업체 주도의 LED TV 시장 확산으로 수출이 확대되었다.

최근 TV업체 간 경쟁 심화로 TV 가격은 하락세이나, 국내업체는 LED TV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TV시장점유율(매출기준, %)은 ('07)28.9 → ('08)33.8 → ('09)35.7 → ('10.1분기)37.0이고, LCDTV가격(42인치, \$)은 : ('09.11) 1,040 → (12)

1,007 → ('10.1) 1,004 → (2) 957 → (3) 919 → (4) 1,046 → (5) 960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111.5%), 멕시코(117.2%), 폴란드(47.2%), 헝가리(110.5%), 인도(86.9%)등 주요 생산지점에서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 58.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56.0% 증가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반도체(24.4억 달러, 133.2%), 패널(17.6억 달러, 49.0%), TV부분품(0.6억 달러, 142.4%) 등 부분품 수출 호조로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로 기존 최대치인 '10.3월 57.5억 달러를 2개월 만에 재경신하였다.

휴대폰(4.2억 달러, △36.8%) 및 모니터(1.0억 달러, △8.1%) 수출은 감소하였다.

【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5	6	7	8	9	10	11	12	'10.1	2	3	4	5
금액	37.5	41.4	46.1	46.8	51.3	51.4	50.3	51.5	52.3	46.7	57.5	57.5	58.5
(증감률)	(Δ13.6)	(Δ4.8)	(10.7)	(3.8)	(11.2)	(14.4)	(19.7)	(22.2)	(110.7)	(56.3)	(69.5)	(57.7)	(56.0)
중국	29.4	32.4	36.1	36.5	40.4	39.8	38.9	41.2	42.0	36.5	45.8	45.8	46.0
(증감률)	(Δ14.2)	(Δ5.2)	(2.3)	(14.7)	(13.9)	(14.6)	(54.4)	(32.8)	(124.5)	(55.2)	(67.3)	(57.8)	(56.2)
홍콩	8.1	9.0	10.0	10.2	10.9	11.6	11.4	10.3	10.3	10.2	11.8	11.7	12.5
(증감률)	(Δ11.4)	(Δ3.3)	(Δ4.4)	(10.6)	(11.9)	(13.8)	(35.4)	(87.7)	(88.2)	(60.1)	(78.6)	(57.2)	(55.6)

미국 : 14.9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  
반도체(3.3억 달러, 91.2%), 패널(0.7억 달러, 140.2%) 등 전자부품이 對미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휴대폰(5.7억 달러, △36.0%)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은 확대되었다.

모니터(0.2억 달러, 52.0%), HDD(0.1억 달러, 50.5%), TV(0.4억 달러, 267.7%) 등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對미국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5	6	7	8	9	10	11	12	'10.1	2	3	4	5
금액	14.5	14.0	14.5	13.0	13.3	13.6	13.6	12.3	12.1	13.2	14.3	14.7	14.9
(증감률)	(1.7)	(Δ3.1)	(Δ8.5)	(Δ9.3)	(Δ15.9)	(Δ17.0)	(15.4)	(25.3)	(3.1)	(5.5)	(14.9)	(3.3)	(2.8)